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격주 뉴스레터 –
해당 부문의 주요 발전 사항
전 세계 우편 서비스

제11호

제19차 2주 기간 – 2026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5일)

멕시코

- 올해 10월 6일, 멕시코 우정 서비스 노조(SNTSEPOMEX)는 파업 예고 이후 진행된 협상의 결과로 '2026년 임금 및 계약 검토'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멕시코 전역 14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멕시코 우정 서비스의 정규직 직원들은 근로 조건 및 임금 개선을 목표로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 올해 10월 12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2026년 집배원 및 우정 서비스 직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스포츠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기관 직원들 간의 동료애를 증진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 미국 우편노동자조합(APWU)과 같은 노동조합들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APWU 라이브: 중간선거가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APWU LIVE: Do the Midterm Elections Put Your Job at Risk?)'와 같은 생방송을 통해, 의회 선거 후보자들이 공공 부문 노동권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과 우편 서비스 민영화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미 우편배달원협회(NALC)는 기존 협약이 몇 달 전 만료됨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동안은 이전 협약 조건에 따라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2027년까지 유효한 APWU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9월에 승인된 급여 등급 4~7단계에 대한 새로운 '최고 급여 단계(top steps)'가 도입됨에 따라, 10월 급여부터 연봉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 지점 폐쇄 및 지역적 영향: 노동조합은 이미 전국적으로 300곳에 가까운 우체국이 문을 닫았으며, 정부가 이를 최대 900곳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마르카주,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파타고니아 지역 등 내륙 지역 사회는 기본적인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 노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0%의 급여 조정, 또는 즉각적인 1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초임 급여가 약 70만 아르헨티나 페소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재의 생활비를 고려할 때 "조롱"이나 다름없으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페루

- 노조 대표들은 국가 기업 활동 재정 지원 기금(FONAFE)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 실무 그룹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운영, 기술 및 보조 인력 직군에 대한 급여 체계와 복리후생을 개편 및 시행하여, 해당 부문 내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 페루 국영 우편 서비스 기업인 세르포스트(Serpost)는 페루 수출관광진흥청(PROMPERÚ)으로부터 '마르카 페루(Marca Perú, 페루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국영 우편 서비스가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교통통신부(MTC)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같은 행사에서, '마르카 페루' 브랜드 탄생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우편 소인(기념 소인)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브라질

- '세계 우편의 날(10월 9일)'을 맞아, 브라질 우편 노동조합 연합체인 FINDECT는 향후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브라질 내에 '모델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야권 세력은 민영화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반면, 현 정부는 현대화 및 물류 개선을 위해 60억 헤알(R$) 규모의 예산 투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정부안이 우편 서비스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9월에 있었던 대규모 전국 파업과, 2026년 단체 노동 분쟁에 관한 고등노동법원(TST)의 판결 이후, FENTECTO 및 FINDECT 산하 노조들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이 대거 몰려들어 긴 줄이 형성되었고, 현장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우편 공사(Correos)가 10월 급여에서 임금의 2%에 해당하는 일회성 비용을 공제하려는 움직임을 막고자 했습니다.

프랑스

- SUD-PTT 연맹 및 CGT-FAPT와 같은 노동조합들은 2025년 말부터 2027년 중반 사이에 441~471곳의 종합 우체국을 폐쇄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려는 사측의 계획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LFI)'와 같은 정당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 정당은 10월 초 며칠간 이어진 시위와 전국적인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지역 우체국 폐쇄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시위는 부슈뒤론(Bouches-du-Rhône), 노르(Nord), 바랭(Bas-Rhin) 등 주요 지역과 마르세유, 리옹, 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 프랑스 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우정공사(La Poste)는 2026년 10월 20일에 '가치 공유 보너스(Prime de Partage de la Valeur, PPV)'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FO Com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이 보너스 금액이 최대 150유로(세전 기준)이며, 연간 소득이 40,000유로(세전 기준) 미만인 공공 부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근 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비례하여 보너스 금액이 차감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 주요 노동조합(Logopeda-CISL, UILPoste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천 명의 임시 배송 및 분류 인력(CTD)이 정규직 근로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5일에는 해당 직위의 정식 채용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임시 지역별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급여 지급분부터 예산법(Budget Law)에 명시된 세금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가 단체 노동협약(CCNL)에 따라 급여가 인상된 직원 중 전년도 소득이 33,000유로 미만인 경우, 1월부터 발생한 소급분을 포함한 급여 인상액에 대해 5%의 대체 세금(substitute tax)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 근무나 공휴일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15%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벨기에

- 2026년 10월 12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성향의 공공서비스 노조(CGSP/ACOD)가 주도한 전국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노조 활동은 연방 정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긴축 중심의 예산안과 공공 부문 지출 삭감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 우편 노조는 지역 지점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경영 계약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벨기에 연방 정부는 우체국 30곳을 폐쇄하고 우체통 500개를 철거하여 5천만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려던 계획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충분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종합 우체국을 유지하기로 노조 측에 약속했다.

중국

- 국가 산하 노동조합과 우정 당국은 해당 부문의 새로운 '5개년 계획'에 근거한 운영 지침을 공식화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물동량 2,900억 건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행정 마을의 90% 지역에 주 5회 이상 직접 배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인력자원사회보장부(MOHRSS)는 우편 및 택배 종사자를 포함하여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8,4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11월 8일까지)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침은 자동화 시스템이 '고객 불만 접수 즉시 처벌'하는 방식 등을 통해 택배 기사에게 임의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택배 기업은 기사들에게 4시간 연속 근무 후 의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마련하며, 차량 유지비를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호주

- 통신·전기·배관 노조(CEPU/CWU)는 연간 4%의 임금 인상이 시행되었다고 확인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상회하는 이번 임금 조정은 국영 운영사와 체결한 주요 단체협약(EBA11)의 일환이다. 노조는 이번 인상이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인사 규정(인사 매뉴얼)에 명시된 공식 급여 체계에 영구적으로 반영되는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 호주 우정공사(Australia Post)는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유지했으나, 콴타스 화물(Qantas Freight)을 대상으로 운송노조(TWU)가 벌인 24시간 파업으로 인해 물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콴타스는 주요 운송 업체인 만큼, 화물 담당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로 인해 우편물 적체가 발생했으며, 한 달 내내 국내 특급 배송이 간헐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보 출처:

SNTSEPOMEX,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Bariloche2000, the postal connect, findect, La France insoumise, Poste Italiane, The Brussels Times, cwucentral.org.au.

작성자: ANGEL BARRIOS CUEVAS
행정 지원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